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어췌어 응답해 드립니다. 섬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구 정문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선원 ● FAX: (031)470-3116



대생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582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6월 14일(음력 5월 19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 29

# 자기 불성 주장자를 꼭 잡고 살아야!

### 좌선을 근본을 증명 받는 방법

**문** 선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청년법우입니다. 좌선을 할 때 본래 있는 나의 근본을 느끼고 알고 싶다면 '내가 있다면 이 손을 한번 들어 보라' 든가 '주먹을 한번 쥐어 보라' 든가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해 보라고 하셔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열심히 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되지 않았습니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 자기 이외의 사람이나 또 자기 이외의 경전이나 자기 이외의 어떤 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의 세계의 정신계. 정신계는 자기 지금 주인공 불성이 있고 물질계에는 내 육신이 있던 말입니다. 그러면 정신계하고 물질계하고 똑같이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물질계보다 정신계가 한 단 위예요.

그러니까 정신계가, 즉 말하자면 주지가 되는 거죠. 주주가 되는 거예요. 얼른 쉽게 말해서 이 물질계의 나는 정신계의 나를 진짜로 믿고 '너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고 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만이, 내가 형성시킨 몸이니까 내가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고 너만이 지켜 주고 해결사가 돼 주고 의사가 돼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를 일선했을 때 텃

공! 주인공! 주인공!"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인공을 믿는 거지 찾는 게 아니예요. 찾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거니깐 믿는 거라고요. 나무가 뿌리 밭듯 말입니다. 이 나무가 자기 뿌리가 없으면 썩어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썩은 뿌리를 의지하고 믿고 살고 또 뿌리는 썩을 도아서 예너지를 흡수해서 올라보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좌선을 하면서 '주인공, 너가 있다면 이 손을 들어 보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내가, 이 물질을 잡으니까 한 단계 위의 자기 조상인 불성, 그게 과거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명령하듯 하면 안 되죠. 명령은 강제로 '이것 들어 보라!' 이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질 말고, 예를 들어서 '주먹을 들어 보라!' 했을 때 그렇게 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알아버리고 있을 때 딱 들리는 거지, 내가 그렇게 강요하고선 금방 들리는 게 아닙니다. 강요는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나는 터득을 했어요. 나는 뭐 내가 경전을 봤나 누구한테 제대로 배우기를 했나. 그런데 공부하고 들어가다가 하도 이게, 심심하다고 그럴까 뭐 어렸다고 그럴까요. 어렸든 그때는 어리니까 그걸 아파라고 그랬거든요. '아빠가 있으면 진짜 이 손을 들어봐!' 이랬거든요. 나는 터득을 해서 통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죠. 인제, 그걸 모르니까 '나와 봐!' 이렇게 하는 거

벌어진 거로구나! 과거로부터 미생물에서부터 이렇게 내가 나를 진화시키고 자기를 형성시키고 또 진화시키고 형성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까지 이르고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눈물이 주르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그 아빠가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그렇게 해 왔는데 내 자식 아님이 어렸으며 내 부모 아님이 어렸으며 이 우주에 전부 선 도량 아닌 게 어렸겠나. 전부가 도량이고 전부가 내 모습이고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모두가 그렇구나. 길고 짧음이 없구나.' 그냥 이런 게 나왔죠.

그랬듯이 이것도 요량이 있어야 돼요.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 한 단계 위다. 정신계는, 나는 과거로부터 진화시키면서 자기를 형성시켜 온 자기인데 지금 현재 나는 자(子)란 말입니다. 그 한 단계 아래란 말이예요. 그런 부(父)가 되고 이전 자가 되죠. 그러면 자식이 예비더러 '이것 좀 올려봐!' 이력한단 그거 되겠어요? 천천히 '그래라, 올려 보겠다.' 하고 '올려 주마!' 그러고서 인제 생각을 잊을 만한 때 그때 이렇게 천천히 올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들이 뭐가 어쩌나 해도 우리 스님들이 자정해서 무엇을 해 준다 이러는 건 없어요. 그쪽에서 와서 건드려야 이쪽에서 주는 거죠. 자정해서 주는 것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모든 게 자유롭죠. 그러니까 이 도리가, 자기 자신을 형성시켜 온 자기 주인공을 통하지 않고는 이 연기법이나 오신봉, 이런 것을 도무지 몰라요. 이걸 통해야 '야, 가고 올 이 없이 가고 오는구나, 내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저 미국으로 점프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 또 이승에서 저승으로 점프할 수도 있구나. 저승에서 이승으로 점프할 수도 있구나.' 그냥 이렇게 자꾸 배우는 거죠. 스승이 인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게 자기 과거가 스승이 되는 겁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렇게 하다가도 지지않아요? 실증이나 실증, 안되면. 그런데 인제서 답답하게 될 때에 '답답한 것도 당신이 하는 거니까 답답하지 않게 해 봐, 답답하지 않게 하려면 이것 좀 들어 봐.' 하고선 이렇게, 딱딱거리지 말고, 간절히 '딱딱 거리는 게 다르고 간절히 하는 게 달라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묘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은산철벽을 뚫으려고 정을 갖다 대고 두들기는 거와 같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애라고 비유한다면 막 보채고 우는 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울지 않는 어린이에 쫓겨 않는다. 그러니까 울어라.' 그러는 거죠. 그러하다가 지치고 답답하면 '에이, 그만 뒤라.' 이라고 쾅개치죠?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월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냥 헛 사이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거기에 답답하다 답답하지 않다 하는 말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것도 내가 답답하게 하는 거니깐 답답하지 않게 해!' 그러세요. 나도 그렇게 살아요. 어떤 땀 눈이 침침해서 '눈이 침침해, 이젠 눈이 침침하잖아!' 그냥 그러고, 또 피곤하고 그러면 '좀 의욕이 있게 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금방 달라져요. 그렇게 하고서 살지, 그걸 환빠에 롬

대 난 아주 당신을 통해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 좀, 손가락이라도 움죽거리려 봐.' 이렇게 그냥 다정한 뜻으로 이렇게 그냥 해 보는 겁니다. 다정하면 빨리 해 줄 거고 다정하지 못하고 명령조로 나오면 안됩니다. 그러곤 정회 화가 나면 나중에 인제 그냥 잊어버렸을 때 손이 들리게끔 하죠.

이 주인공이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랬는데 뭐 그걸 못 믿습니까? 못 믿을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게 가지고 자꾸 통하게 하기 위해서 보채라. 얘기가 쫓 달라고 울듯 보채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렇게 한 10분 동안이라도 그렇게 자꾸 보채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은산철벽을 뚫으려고 정을 갖다 대고 두들기는 거와 같은 것을 아시고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함의 없이 살라고 하신 이유

**문** 분별 배워야 할 게 있고 해야 할 게 있고, 먹어 살려야 할 가족이 있는데 내가 있어, 함의 없이 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 어떤 것이 진실한 불교나 생각해 본다면 그냥 생활이 불교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이런 것을 따지기가 이전에 우리가 한 지구 안에

했으니까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노릇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렇게 자동적으로 많이 했어도 함의 없이 했을 뿐이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에 걸어서 들어오기는 틀림없이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발자취를 짚어지고 오신 분이 있으신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들이 하시고도 하신 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짚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 하나가 잘못됐으면 그 과거를 외려 붙잡고 간다 이겁니다. 어저께 한 일도 오늘 걱정을 해야 하고 그걸 붙들고 쫓길 때고, 1초 전도 과거니까요. 1초 후도 미래니까요. 그럼 현재만 있느냐. 현재만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도 공했다 얘기도,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공했으니까 모두 여러분이 할 뿐이지 한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어떤 것을 들습니까? 듣는 것을 하나만 듣고 마는 겁니까? 똑같은 걸 들습니까? 이걸 듣고 또 딴 거 들어야 하고 또 딴 거 봐야 하고 딴 거를 해야 하고 딴 사람 만나야 하고, 이런 일일이 이렇게 돌아 가면서 이렇게 작용을 해야 하나까 이것은 얼른 쉽게 말해서 공용(供用)입니다. 공용! 공용! 기겁은 왜냐. 내 오장 육부에도 생명체가 천차만별로 들어 있으니까요. 이 몸속에 생명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 있어서 의식이 자기 마음을 건드린다는 것을 모르



그림 · 최주현

좁에 앉아서 그 텃밭에 달린 쫓겨나고 애가 똥 누고 잠자고 먹고 그러고 길러지거든요. 그와 같이 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텃밭이라는 것은 둥글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근본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근본 자리에서 쫓겨나 있다 하는 것은 자기 불성, 주장자, 그러니까 주장자를 꼭 잡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주장자만이 나를 이끌어 수 있고 광대하게, 쉬지 않고 이끌어 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도 서 있는 것도 자는 것도 밀리는 것도 모든 게 참선으로 둥글려서 돌아가거든요. 진리니까. 그러니 저녁이라도 한 10분 동안이고 15분 동안이고 앉아 있으면서 '너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고 관련한 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썩어 나야 인제 이 물질계하고 정신계하고 상봉이 되는 거죠. 통신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통신이 돼야 이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의 그 공용(供用)을 알 수 있던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용(用)을 하는 것, 움죽거리라는 것 이란게 이런 것이 내가 움죽거리지 않고 움죽거리라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든 공부할 때 그냥 계속 "주인

## 자꾸 통하게 하기 위해 얘기가 쫓 달라고 울듯 보채라

죠. 그러니까 안 움죽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잊어버리고 인제 일어나야겠다 하고 일어나는데 그냥 이 손이 번쩍 들리는 겁니다. 난데없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데 손이 번쩍 들리더니, 색경으로 가는 겁니다. 보라고, 색경을 보라 이거예요. 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색경을 보라 이겁니다. 지금 생각을 하나 터득을 해서 다 나온 거죠, 그게, 그래서 색경에 가 보니까 내 얼굴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그림자가 틀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걸 따지고 보면 그 색경에 비치는 것은 환상이고, 너는 지금 주인공 근본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너 몸통에는 환상이고 너 근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너로 인해서 비치는 그 환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때에 '어, 너나나나 틀이 아니구나. 이것이 모두가 나한테서

부어 먹기로 하면 되나? 롬 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하지 말고 본래 나한테 주인공이 있으니까 그렇게 꺼내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믿는 거, 진짜로 믿는 거, 믿는 거를 전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 보다가 이게 인제 자꾸 저거 하면 '내가 답답해서 그러니까 너가 정말 있다면, 주인공 당신이 정말 있다면 손 좀 들어 보든지 손가락을 들어 보든지 해 봐!' 이렇게, 그냥 인 의뢰를, 답답하지 않게, 되든 안되든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말입니다.

그때 인제 거기가 다 놓고 그렇게 할 때에 이거는 마음이 생겨가 육체가 움죽거리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육체가 움죽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가만 놔두고 이렇게 '당신이 진짜 있다면,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움죽거리라는 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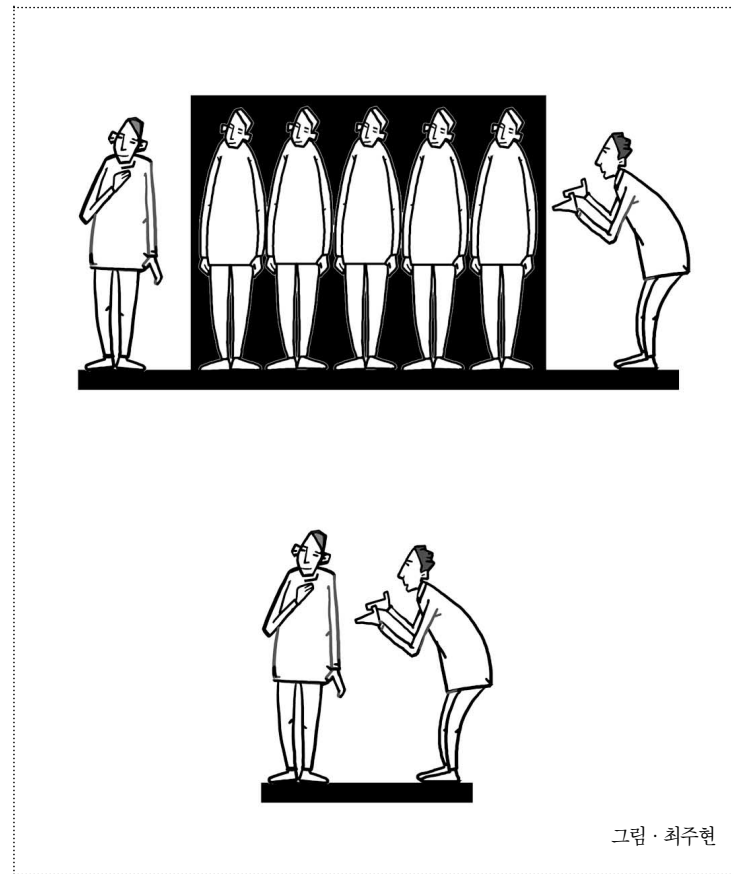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시나요? 이 모든 의식들이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따라 주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오장, 이 인간의 한 모습이 한 세계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크다면 요만하게 좁쌀 알갱이만하게 하나 만들어서 넣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것이 수효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수효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데다가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이 또 이름이 주어져 있죠. 우리네 세계, 이 지구 하나의 세계가 벌어져 있듯이, 워다 장이다 쳐수다 쳐수다 방광이다 장이다 하는 그 이름들이 수효가 없습니다. 다 따지자면 수효를 어떻게 그걸 일일이 헤아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 하나면, 즉 말하자면 하나면 의식이 다 거기에 포함해서 하나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공용(供用)이다 이 소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 이파서 관하면 의사가 돼 주고 또 집안이 안파서 관하면 관 세움이 돼 주고, 이 소리는 뭐냐 하면 해결사가 돼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관하면, 자기 용도에 맞게 관하면 또 보디가드가 돼 주고, 이거는 천차만별로 자기가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30면으로 계속

# 모든것 내탓으로 보는게 눈 뜨고 폭자는 것!

29면에서 계속

것대로 현실로서의 그것이 행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이 천만의 말이기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나는 의문이죠.

모든 주체는 자기네들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형성시켰고 자기가 형성했기 때문에 주체는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주체는 뿌리와 같고 자기 모습은 싹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싹은 뿌리를 믿고 뿌리는 싹을 돕고 이래야 푸르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불교라는 것이 이름으로만 '불교 불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단어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서 나라가 싸우게 되고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 이치가 바로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다 이 소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구를 어느 축성이, 즉 말하자면 부딪치게 됐다 이런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그것을 해결을 하겠습니까. 이 불교란 너무도 심오하고 너무도 광대해서 무변한 겁니다. 내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 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축성이, 내가 축성이 된다면 그것을 멀리 해서 부딪치지 않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죠.

그와 같이 사람은 '오늘이 며칠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져서 지금 며칠 며칠 하지만 포괄적으로 본다면 '어디 무엇이 이렇게 있다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면 그것은 벌써 100년 200년을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 어디가 이것이 꼭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이 꼭 이렇게 있다. 이것은 이렇게 한다. 이것은 저렇게 한다. 때가 되면 이렇게 죽는다. 때가 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것도 그냥 그런 난삽이예요. 왜냐? 예언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예언이라는 것이 없는 까닭이, 이렇게 이 겁이 지구라면, 얼른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있으면, 벌써 1초 후면 이렇게 된 때 가 있어요. 모든 물질이 다 그렇게 변화가 오는 겁니다. 사람은 늙고 또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변화가 무쌍하죠.

그러니까 이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도 한 게 없다 이겁니다. 한 게 없이 했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편안하게 사실 겁니다. 아, 그리고 죽는다 산다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성돼서 이 세상에 나왔죠? 죽어가는 것도 이 세상에서 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어갈 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 정법 아닌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스님께서는 오직 마음으로만 풀으라고 하시는데 세상에는 길도 많고 진리로 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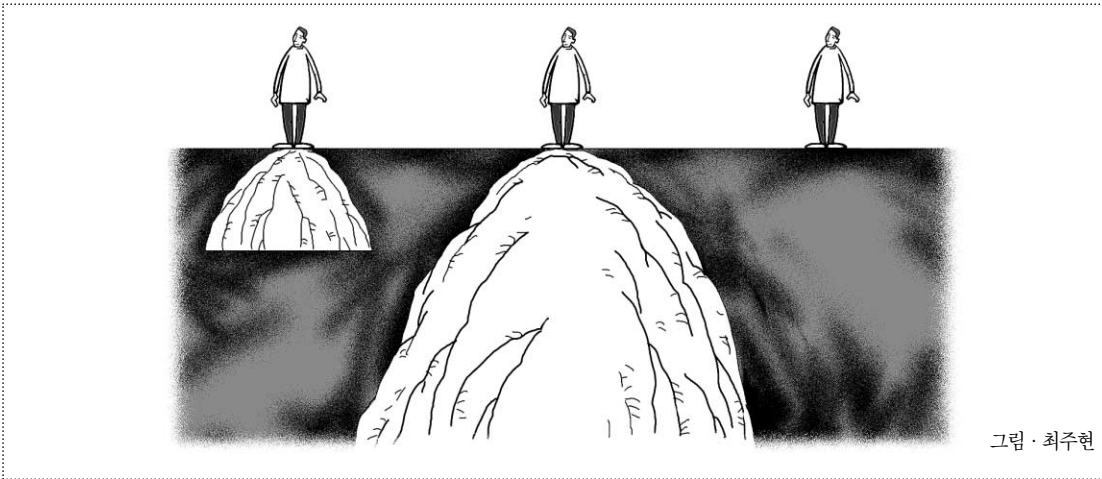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뜻을 말로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문제다

방법 또한 한 가지만은 아니어서 정법 아닌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어느 사람이 와서 "이것이 옳습니까?" 하니깐 그르단 말은 하나도 안 하거든요. "이게 어떤 게 정법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깐 "응, 그것도, 그것도 옳다." 저 얇은 산은 저 높은 산하고 어떤 게 차이가 남니까? "얇은 산도 옳고 높은 산도 옳다." 그래서 한번 죽기는 어렵다 했는데, 그레도 한 번 죽기는 쉬운데 같이 죽기는 어렵거든요. 그게 두번째예요. 그러고 나서 또한 전부 같이 나뉘기 어렵다 이겁니다. 이 뜻을 말로만 황하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문제예요. 거기에는 티끌 하나 붙질 않아요! 그리고 옳은 게 붙질 않아요. 이런 공부 하는 사람들은 마음예다가 '아, 저건 틀리다. 저건 옳다.' 그런 걸 가지면 절대 이견 할 수 없어요. 미지수의 그것을, 한 구별도 없고 티끌도 없는 그걸 한순에, 참나에 풀을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 나가다가 점차적으로 풀을 수 있는지 모르죠. 하나 미해될 수도 있거든요. 하도 따지니까, 왜 그렇게 달기는 좋아하는지... 달기를 좋아해서, 그 몇 근이나 되는지 그게 의심이 난다고요.

우리가 한번 '아, 참 너 만나서 좋구나.' 하고 아주 웃으면서 그 소리 한번 하는 게 몇 근이나 될까요? 그래서 나는 그르고 옳은 것을 '선을 지킨다면 선의 업이 있고 악으로 간다면 악의 업이 있다. 선과 악을 다 놔라.' 이라고 싶은 거예요. 잘되고

고 못된 거를 다 놓지 않는다면 그런 처우됩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구가 조금도 틀리지 않는 부동한 자세로서 그 공지를 가지고 지축이 흔들리지 않게 있음으로써, 사방에서 조여드는 그 자체로 인해서 자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거 하나 불어도 타 버리고 맙니다. 타 버리는 관계상 살아나는 거죠. 이 유생 무생이 다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이 원리를 왜 모릅니까! 우리 인간 하나 하나도 축성이 다 이겁니다. 별성이 다 이거예요. 한 사람의 한 점의 마음의 불덩어리가 은 우주 세계를 다 집어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어삼킬 수 있는 그 요묘한 마음을 가지고 만 날 저울질만 하고 있으니 이것은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나와서 저울질하다 간다면 저울질밖에 못하지 어떡합니까. 차원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모두가 그렇게, 사람도 차원대로 살고 있고 끼리끼리 모여서 회사에 들어갔으면 회사원이죠. 뭐, 장사하면 장사꾼들대로 모일 거고, 이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만 하지 말고 내 내면을 볼 수 있을 때, 내공을 볼 수 있을 때 출연히 그내면으로 하여금 '천리도 눈앞이라 조그마한 그 불씨 하나가 삼천대천 세계를 집어삼킨다.' 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뭐 남는 게 있어서 몽땅 다 태워 버리나? 본래 태워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마음으로 그렇게 쌓아 놓으니까 그렇죠. 무조건이지, 뭘 이렇게 달고, 저

렇게 달고, 그게 도대체 몇 만 근이나 된다고...

나는 그전에 8·15 해방되고 나니까 스무 살이 됐고, 그때 한 큰스님한테 갔는데, 예전에는 차가 없고 참 길도 험악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거기 가려면 무지하게 차를 타고도 하여튼 무지하게 걸었던 말입니다. 흥성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주 그런 뭐 길도 험악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며칠을 걸어서 그렇게 갔으니, 얼굴은 뭐 흙투성이고 그런 뭐 말도 못해요. 나 생긴 거 보세요. 조막달이만한 게 얼마나 그때 험했겠나.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스님! 얼마나 가만 죽겠습니까?" 그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가 "눈 뜨고 폭 자면 돼, 죽는 거야, 그게." 이러시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참 실감났어요.

눈 감고 자는 거는 그게 자는 게 아니죠. 눈 뜨고 자야, 어디 시장바닥에 갔다가 뺨개쳐도 우뚝 우뚝 서죠. 잘된 거 못된 거를 남의 탓으로 돌려서도 아니 되고, 또는 잘된 거 못된 거를 건져 들어도 아니 되고, 잘된 거 못된 거를 일일이 그걸 계산해도 아니 되고... 그건 그런 거죠. 그래서 속으로 똑똑하더라도 좀 겉으로 무식한 척하면서 둔한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공부는 둔하지 않고는 도대체 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오관을 통해서 이 사람으로 전부 알거든요. 이 머리로 다 알아버려요! 감각이니 지각이니 이게,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여기 기계적으로 다 있는 거거든요. 여길 통해서 다 그냥 자기한테 전부 오는 게 있으니 그 높은 오는 거가 수많은 게, 헤아릴 수도 없는 게 그냥 스쳐 가는데 언제 그놈의 걸 세우니까?

언제나 누구냐,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기 탓이예요. 이 세상에 자기 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봤고 자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들었고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되고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게 내 탓이죠. 못난 내 탓이란 말입니다. 잘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았고 그저 그대로 내 탓이예요. 그 내 탓이라는 그 한마디의 뜻이 눈 뜨고 자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인접은 일이라는 게 부부지간이라든가 자식지간이라든가 모든 일에 대해서 참 이익하게 말을 상하지 않게 해 줄 뿐 아니라 말을 해서 상황 일이라면 하지 말고 안에 다 굴러야 하고 안에 놔야 된다 이겁니다. 내공 예다. 모든 걸 내공에서 나오는 건 내공에다 다시 놔야 됩니다. 잘되고 못되고, 잘된 거는 감사하게 놓고 안된 거는 안돼서 맡겨 놓고, '나는 공부를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것이 공부다, 저런 것이 공부다' 이런 걸 다 놔야 돼요. 급하다는 거까지도 놔야 됩니다. 그렇게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내가 나온 자리, 내가 낳기 이전 자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전 자리를 알게 되면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으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안녕하세요, 김혜옥입니다.

넉넉한 마음, 나누는 기쁨,  
그리고 삶의 지혜가 함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전 11시 5분, 김혜옥의 아름다운 초대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BBS 불교방송

부산 89.9 Mhz / 광주 89.7 Mhz / 청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 97.7 Mhz / 포항 105.5 Mhz